

## 북한 공간문헌 속의 제주

진희관(인제대학교 교수)\*

### 논문 요약

이 글은 북한의 공간문헌에 나타나는 제주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의 제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전개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사회조사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외는 달리 그들의 공간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내용분석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이 글에서는 현실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공간문헌 해석을 통한 분석을 사용하였다. 로동신문과 통치자의 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섬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나, 4.3의 피해가 깊이 새겨져 있는 핏박받은 땅이자 ‘항쟁의 섬’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이승만정부의 ‘탄압과 폭정’ 그리고 차별받는 지역으로서의 상징으로 제주도를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해방 직후의 사건보도 등이 로동신문에 게재된 이후 60~80년대까지는 제주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로동신문의 지면이 대체로 6면에 불과해서 양적으로 매우 적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주로 대남면으로 사용되는 5면에(최근에는 6면에 게재) 게재되는데 이마저 북한 내부의 큰 행사가 있을 경우 대남 기사는 전혀 게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접어들면서 기사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4.3항쟁 50주기와 70주기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제주도민방문단이 오가면서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4.3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제주도, 북한, 공간문헌, 로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4.3민중항쟁

\* 인제대 통일학연구소 소장

## I. 들어가며

제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주도과 한라산 방문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백두산 천지 방문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한라산 백록담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가가 제주도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이 제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옛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Pravda)』 또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조명하는 연구는 일부 존재하며<sup>1)</sup> 가치 있는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공간문헌에서 남측의 지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글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공간문헌에 나타나는 제주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의 제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전개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사회조사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그들의 공간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내용분석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 이글에서는 현실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북한의 공간문헌 해석을 통한 분석을 사용하였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로동신문과 통치자의 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로동신문은 1945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약 73년간의 전체시기를 살펴보았고<sup>2)</sup>, 통치자의 문헌은 김일성저작집 44권<sup>3)</sup>, 김정일선집

1) 기광서,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 : 소련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도 『프라우다』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史叢』 제67권, 2008; 손과지, “4월혁명과 민주주의: 중국의 한국 4.19 혁명에 대한 인식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중심으로-.” 『史叢』 제71권, 2010.

2) 『로동신문』 기사검색 1945~2002년은 2003년 동국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연구자료를 활용하였고, 2003년~2015년은 로동신문을 직접 분석하였으며, 2016년~현재까지는 로동신문 인터넷사이트의 검색기능을

전 15권, 김정은의 ‘로작’ 53건<sup>4)</sup>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신문에서는 2015년 필자의 연구에서 ‘제주’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제목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328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5)</sup>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사는 모두 3건으로 총 331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sup>6)</sup> 또한 최근 남측에 대한 기사가 다수 실리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 ‘제주’ 검색어를 사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28건 기사와 ‘봉기’(4.3을 다룬 기사)로 검색되는 8건 중 중복을 제외한 7건을 포함하여 35건을 추가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치자의 문헌은 제목과 내용 전체에서 ‘제주’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저작집을 제외하고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문헌에서는 제주라는 단어는 1회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김일성의 저작집에서도 16회만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분석대상에 대한 대체적인 빈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연대별 ‘제주’를 포함하는 노동신문 기사제목 건수

연대	1945~1949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10~2015	2016~2018	합계
기사건수	12	33	47	33	60	48	44	51	3	331
비율 %	3.6	10.0	14.2	10.0	18.1	14.5	13.3	15.4	0.9	100

활용하였다.

- 3) 『김일성저작집』은 50권까지 출간되었지만 45권부터는 사망 이후의 계승본이기에 44권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물리적 여건상 『김정일전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 ‘로작’ 검토는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http://www.uriminzokkiri.com>)에 게재된 김정은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는 총 140건의 김정은의 로작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중 중복게재된 88건을 제외하면 53건의 로작을 발표했다고 할 수 있다. 진화관, “북한의 로작 용어 등장과정과 김정은 로작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1권 2호, 2017 참조.
- 5) 다만 328건 중에는 ‘제주’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기사가 21건이 있다. 제주 해군기지를 해군기지로 표현한 것과 ‘4.3’이 포함된 기사는 명백히 제주 관련 기사이기에 포함시켰다.
- 6) 2016년 이후의 노동신문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내 노동신문 기사 메뉴에서 검색기능을 활용했다. ‘제주’로 검색할 경우 1건밖에 검색되지 않지만 ‘4.3’관련 기사를 확인하여 2건을 추가한 것이다.

〈표2〉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로작에서의 ‘제주(도)’ 단어 출현 횟수

	출현 횟수
김일성저작집 총 44권	16회
김정일선집 전 15권	0회
김정은 로작 53편	0회

## Ⅱ. 제주도에 대한 소개 기사

제주도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기사가 실린 것은 65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해 1월 17일 기사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뒷 장의 그림과 같이 1959년 4월 18일자 5면에 실린 기사 “황폐화되어 가는 제주도”라는 기사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지만 65년 기사는 비판적이면서도 전반적인 제주의 인문, 자연지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에는 특히 남한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매우 특별하게도 제주도를 폭넓게 소개하는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6면 특집으로 꾸며서 제주의 지도까지 그려 넣어 설명하면서 여섯 컷으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1〉 항쟁의 섬 제주도(로동신문 1969년 1월 17일)



제주의 탄생역사와 4.3항쟁 그리고 ‘남해의 명승’지로 소개하면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업 중심의 제주 경제와 삶, 해녀들의 생활고와 일생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주를 소개하는 기사는 처음이다. 이 기사는 [조국땅 남방부]라는 소재로 연재된 기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기사를 시작으로 1967년 2월까지 2

년여에 걸쳐서 제주도 외에도 다섯 개의 도시와 지역을 다루었다.<sup>7)</sup> 주로 대도시들을 다루었고 제주도와 강화도만이 섬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아마 제주도에 대한 궁금증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48년 이후 4.3항쟁을 빈번하게 소개하면서도 제주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나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더욱 자세하게 소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림 2〉 황폐화 되어 가는 제주도(로동신문 1959년 4월 18일)



1973년 11월 30일자에서는 〈금수강산 우리조국〉이라는 6면에 제주도를 다소 다양하게 인문지리, 자연지리 그리고 현대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해녀에 대한 기사는 1961년 6월 17일자에 처음 게재되었는데 경북 동해안으로 진

7) 『로동산문』 1965년 1월 27일자 6면에서 〈대구시〉를 다루고 있고, 3월 14일자는 6면에서 〈울산시〉, 11월 24일자는 6면에서 미국 대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함께 남조선 전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다루고 있다. 1966년 1월 5일자는 3면에서 〈인천시〉를 다루고 있고, 1967년 2월 4일자는 5면 하단에서 〈강화도〉를 다루고 있다.

## 제 주 도

제주도는 동물상은 그대 다양하지 못하지만 새류로는 원조비둘기목새, 제주참새 등 180여종이 산다. 그중에서 제주참새는 경제 가치가 크다. 제주참새는 세계적으로 유일할만치 아름답고 크며 그 수가 많다.

제주도에서 수산업은 대표적 생산분이다. 우리 나라 4대어장의 하나로 꼽히는 제주도어촌에는 전돔, 갈치 등 조개류와 원조, 미역 등 해산물이 많으며 연피다리는 고래와 난류생이족들이 풍부하다.

제주도에서 늦엽은 요구마, 밀, 보리, 남새 등이 기본이고 논면적은 많지 않으나 그대신 목축업의 발달이 많다.

그러나 오늘 제주도는 미술협작자들의 협작정체와 남조선문화리들의 변민민적색치적으로 말미암아 옛날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제주도는 미술협작자들의 군사기치로, 일본군치자들의 자민탈탈치로, 놀이치로 전락되어 항구에는 고기배치인 굴합물이 드나들고 명승지에는 도박장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유흥장과 오락들이 즐어들고있다.

도민들은 미제침략군의 군사기  
지화정책으로 팔과 이장을 때우고  
북쪽지역에서도 쫓겨나고있다. 지금  
성안의 북쪽지역들은 미국놈들장주

심사관들은 전기불조차 보지 못하고있다. 설하여 화력발전소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로 풍사

같은 별저송이가 최고 식판값은  
목지보다 20%나 더 비싸 성주

그중에서도 제일 치열한 생활을 하고있는것은 해녀들이다. 그들은 먹고살기 위하여 땅장 해산을 앞

이와 같이 해녀생활을 그만두었던  
젊은 해녀들도 다시 구역을 배고  
바다로 나가고있다.

《관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볼일  
것이 기억되고있다.  
그러하여 제주도의 거미와 마을

에 지금 거지와 도적이 육식거리고  
미국놈과 세습놈이 살판치며 돌아  
다니고 병송고적들이 죄책침박자들  
의 발꿈길에 짓밟히고있다.

일본관공작들은 자원박탈에 날  
뛰다 못해 생안의 어린이들을 구  
슬에 썰णी이여 비둘라 사냥을 택  
시 일본에 가져다 팔아먹기까지  
하고있다.

그러나 설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미일 협약자들과 박정최도당의 태국에 국적변경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

제주도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외적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웠다. 1932년에는  
일제의 강압적인 수탈을 반대하여

해녀들이 경찰주재소를 습격하고 자동차와 경비정을 파괴하고 채로 된 동포들을 탈취하는 등 만일 예국의 기개를 떨치었다. 8.

15후에는 《유엔조선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는 1948년 2.  
7구국투쟁과 5. 10남국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온 섬사람들  
이 참가하여나 소에 동조를 할

책이었다. 항쟁자들은 《미군 물러  
가라!》, 《광복단선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면서 몇달동안에  
걸쳐 수십차례나 경찰지서를 습격

과파하고 반봉경찰들을 쇠단하였  
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제주도의 300여개의 마을중에  
300여개의 마을을 파괴하고

저 200여개를 저서로 출판했  
으며 심원구의 4분의 1에 해당  
하는 7만여명을 집단학살하는 권  
력에 용납 못한 탄핵을 간행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도민들은 마

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열기하여 농민의 《토벌대》를 소집하며 비행장을 파괴하고 방송국을 불살라버렸다.

3. 24, 6. 3 부정에도 용감히 싸웠으며 오늘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다.

우리의 나라가 통일되면 남해의  
명승지 제주도는 다시 그의 고유  
한 옛모습을 되찾을 것이며 통일발  
전할 것이며 인민들은 참다운 생  
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본사기자 김 계 팔

출한 제주 해녀들이 ‘입어료’ 수탈에 항의하는 사건을 다룬 단신 기사이다.

이후 1991년 8월 5일자 기  
사까지 모두 12건의 기사가 게재  
되고 있다. 대체로 해녀들에 대한  
수탈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91년 마지막 기사는 해녀할머니  
의 동생이 북한에서 행복을 누리  
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  
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해녀 기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과거 로동신문에서 해녀는 생  
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약자로 묘  
사되고 있고 살기 어려운 남한의  
상징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91년 이후 사회주  
의권이 해체되고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기’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큰 태풍피해가 발생할 때도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1959년 8월 태풍보도를 시작으로  
1966년 9월 두 건의 보도가 있

실정과 연계지어 해석하고 있는

[illegible]

〈그림 3〉 제주도(로동신문 1973년 11월 30일)

이같이 로동신문에 나타난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남한에 대한 비판 흐름에 맞춰서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사는 4.3과 관련된 기사들로 펍박받은 땅, 피해의 지역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Ⅲ. 로동신문 기사의 시기별 추이

통계에 대한 설명은 물리적 편의상 대체로 균일하게 나누어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 1. 1945~1959년

최초의 기사는 1947년 12월 11일자 3면에 실린 “남조선인민들도 조선임시헌법 제정을 절대환영한다 - 제주도에서 북조선에 온 리용수씨”라는 기사인데, 분단과정에서 북한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기사로 보인다. 즉 북한의 역사서<sup>8)</sup>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위 북한(공화국) 정권 수립과정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사전에 진행하였고, 이 때 남한에서도 다수의 대의원이 북으로(당시 해주) 와서 투표하였으며 제주에서도 많은 대의원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공공연히 홍보해 온 만큼, 1947년의 로동신문에서도 북한의 상대적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서 월북한 제주 사람의 언급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1947년 기사에서 리용수씨를 제주도의 대룡면 상묘리 출신, 31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구역은 현재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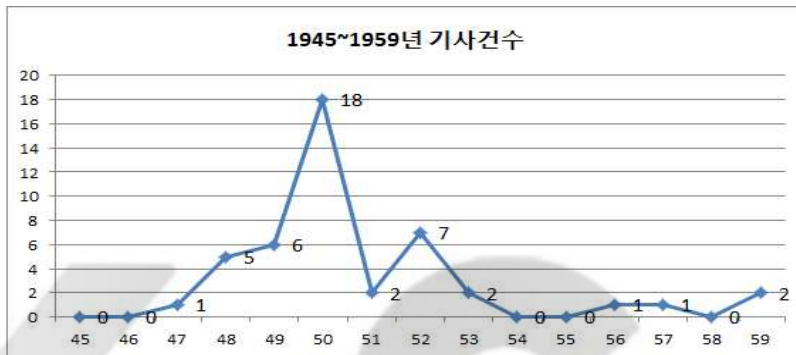
48~50년 3년간 29건의 기사 중 25건은 4.3항쟁에 대한 기사이다. 미군과 한국 군경의 폭압적인 소탕작전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대부분을 이룬다.

8) 북한의 공식 역사서 제작 기관에서 발간된 『조선전사』, 『현대조선력사』, 『조선통사』 등을 말함.



52년에 7건으로 증가한 것은 제주도로 이송된 전쟁포로들에 대한 기사가 3건이 되면서 증가했다.

〈그림 4〉 1945~1959년 기사 추이



## 2. 1960~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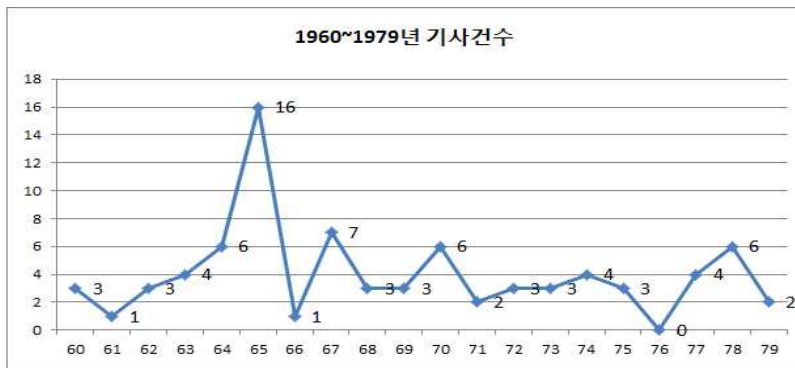
총 80건의 기사이며 65년에 급증한 것은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되어 증가한 것이다. 제주대 학생들과 고교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담고 있다. 예컨대 아래 〈그림 5〉의 ‘학생들 시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듯이 신성여고, 제주상고, 오현고의 시위를 낱싸순으로 소개하고 있고, 제주 대학의 100여명의 학생들의 시위를 소개하고 있다. 70년에 기사가 증가한 것은 임금투쟁에 관한 기사가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부두노동자와 제주 주정공장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다루고 있다. 78년에도 6건으로 증가했는데 가뭄문제가 두 건이며, 이외에 특이한 내용의 기사가 두 건 등장하고 있다.

〈그림 5〉 제주 학생들의 시위 관련 기사



제주도민들이 김일성 장군을 기다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78년 10월 19일자, 11월 9일자), 이는 당시 통일혁명당 기관지 [혁명전선]에 실린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장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81년 6월 29일자와 82년 1월 22일자에도 두 번 실리는데 모두 통혁당 목소리방송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은 실리지 않았다. 다만 80년대 두 건의 기사는 1면 상단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의 비중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1960~1979년 기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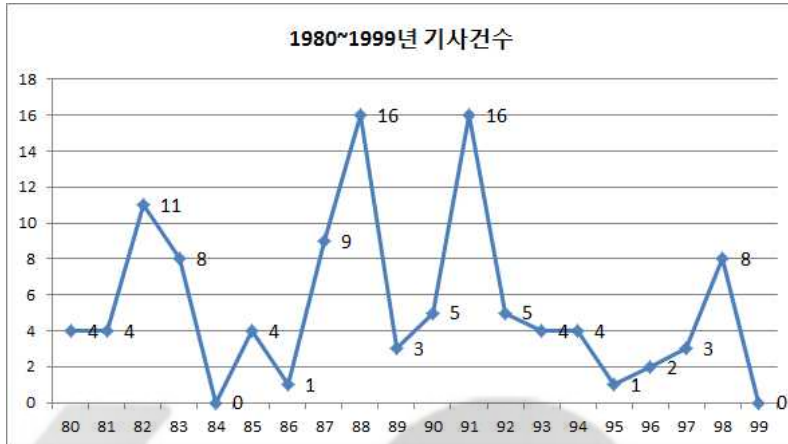
### 3. 1980~1999년

1982~83년도는 전반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비판기사가 대체로 증가하였는데 전두환 정권의 출현과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것을 민중의 생활고와 연계한 기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1987년, 1988년도의 기사가 급증한 것은 6.10항쟁과 88년 총선 이후 대학생들의 시위현상에 대한 빈번한 보도가 있었고, 특히 1988년도의 경우 송악산 군사기지건설 반대 운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1991년은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시위와 불법성 등을 놓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 때 제주에서 이루어진 한려정상회담(91.4)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대한 비판기사가 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에 갑자기 기사가 증가한 것은 '4.3' 항쟁 50돌을 맞게 되어 이에 대한 기사가 6건이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7〉 제주도민들이 김일성 장군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기사



〈그림8〉 1980~1999년 기사추이



한 가지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언급한다면, 1990년 10월 3일자 “제주시 주민들 토지를 빼앗는데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제주시 사창동’ 지역을 언급하는데 실존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1990년에 실존하는 사창동은 충북 청주시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기사 내용에는 ‘ 시내 복대동’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창동과 복대동은 현재까지 청주시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주시에 대한 기사를 제주시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에서 매우 보기 드문 오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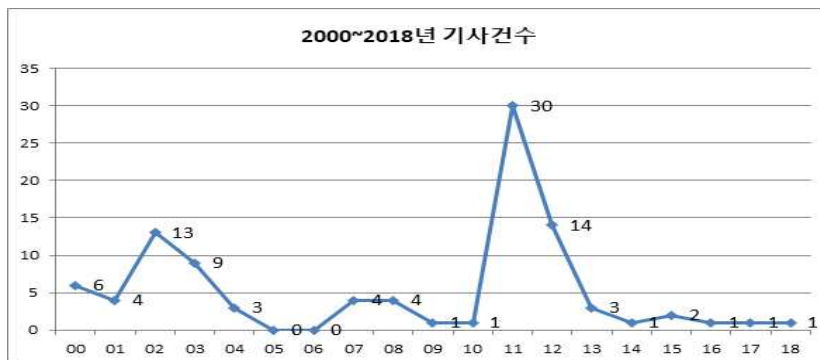
〈그림 9〉 제주시 주민들 토지를 빼앗는데 항의



## 4. 2000~2018년

2000~2001년 2년간의 기사 10건은 전체가 4.3항쟁 관련 기사이다. 2002년과 03년에 각각 13건과 9건으로 기사가 증가한 것은 2002년 5월과 11월, 2003년 8월 3차례에 걸친 제주도민방문단의 평양 방문을 다룬 기사가 증가한 것이며, 2003년 10월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기사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다만 로동신문에서는 감귤보내기의 현황에 대해서는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 제주의 감귤만이 아니라 이 외의 인도적 지원을 받은 물품, 물량, 횡수 그리고 지원해주는 주체 등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일체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로동신문이 당의 기관지라는 성격이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제주도민방문단의 4차방문이 이루어진 2007년 11월의 경우 기사화되지 않았는데 규모면에서 1/4 가량(69명)으로 감소했다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4차방문 시기는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총리급회담, 장관급(상급)회담 등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에 큰 쟁점들이 많아서 일반 방문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림 10〉 2000년~2018년10월 기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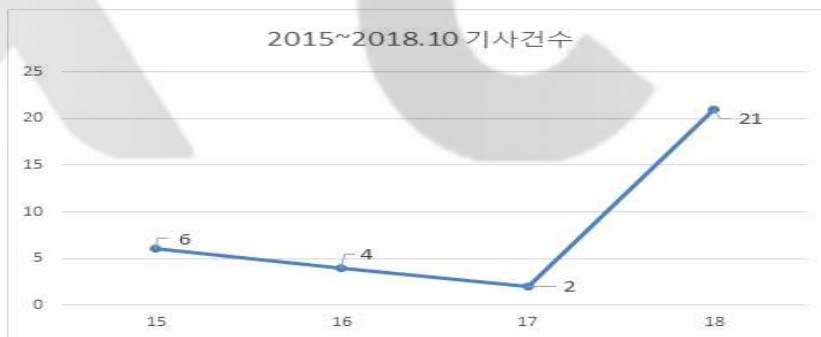


2011~12년에는 30건과 14건으로 매우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비판적 기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44건 기사 중에 43건이 해군기지 관련 기사이며 나머지 한 건은 2011년 4월 3일의 4.3항쟁 추모 기사이다.

### 5. 2015년 이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기사 추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웹에 저장된 2015년 1월 1일~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전체기사 17,200건 중 '제주'로 검색되는 기사는 28건(0.16%)이다. 그리고 4.3과 관련된 '봉기'로 검색되는 기사가 모두 8건이며 중복을 제외하면 7건이 검색된다.

〈그림 11〉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제주관련 기사 2015~2018 추이



〈표 3〉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제주관련 기사 전체기사 대비 추이

	2015	2016	2017	2018	합계
전체기사(건)	5,013	4,923	4,172	3,092	17,200
제주기사(건)	6	4	2	21	33
비율(%)	0.12	0.08	0.05	0.68	0.19

〈표 4〉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제주관련 기사 2015~2018

<p>2015년 기사 (6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02-02) 제주해군기지 군, 경찰 행정대집행 강행, 주민들 투쟁의지 피력</li> <li>- (2015-02-08) 사대매국집단만이 강행할수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책동</li> <li>- (2015-04-03) 4. 3인민봉기, 투쟁만이 승리의 길이다</li> <li>- (2015-04-07) 4. 3인민봉기의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li> <li>- (2015-07-05) 제주해군기지반대 3 000일기념 대행진이 진행된다</li> <li>- (2015-09-17) 제주시민들 이디스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반대, 해상시위 전개</li> </ul>
<p>2016년 기사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01-08) 제주대학생들 《합의》 전면무효를 선포하고 항의집회 진행</li> <li>- (2016-02-07) 《제주 4. 3희생자 &lt;사상검증&gt;? 죽은자도 &lt;종북&gt;으로 몰려는 패륜적망동》</li> <li>- (2016-04-03) 제주도 4. 3인민봉기는 어떤 투쟁인가?</li> <li>- (2016-11-28) 제주도주민 2 000여명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 개최</li> </ul>
<p>2017년 기사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에서 박근혜즉각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 찬비속에서도 진행(2017-01-09)</li> <li>-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초불항쟁개시 1년을 기념하는 초불집회 진행(2017-10-29)</li> </ul>
<p>2018년 기사 (2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3-21) 《제주도는 왜 &lt;피의 바다&gt;가 됐는가?》</li> <li>- (2018-04-01) 《제주 4. 3항쟁 70년의 피맺힌 역사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li> <li>- (2018-04-02) 오늘도 메아리치는 제주도렬사들의 웨침</li> <li>- (2018-04-02) 제주도인민봉기</li> <li>- (2018-04-02) 남조선보수패당은 왜 4. 3인민봉기를 모독하여왔는가</li> <li>- (2018-04-02) 《제주 4. 3항쟁 70년의 피맺힌 역사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li> <li>- (2018-04-03) 남조선 민주로총 제주본부 4. 3인민봉기 70년을 맞으며 범국민대회 개최</li> <li>- (2018-04-03) 제주도항쟁렬사들의 넋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li> <li>- (2018-04-03) 남조선 민주로총 제주본부 4. 3인민봉기 70년을 맞으며 범국민대회 개최</li> <li>- (2018-04-05) 남조선의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4. 3항쟁 기억문화제》 개최</li> <li>- (2018-04-10) 남조선의 민중당 4. 3인민봉기에 대한 미국의 범죄만행을 강력히 규탄</li> <li>- (2018-04-11) 남조선의 《4. 3범국민위원회》 제주도인민봉기를 폄훼하는 보수언론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 반미투쟁을 전개할 입장 표명</li> <li>- (2018-04-14) 남조선의 《제주 4. 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항쟁렬사들을 추모하는 기념집회 진행, 미국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li> <li>- (2018-04-15) 남조선시민사회단체들 제주도에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여러가지 행사 진행</li> <li>- (2018-07-21) 남조선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제주국제관함식 유치》 중단을 강력히 요구, 량승태를 검찰에 고발</li> <li>- (2018-10-06)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옥일기》를 계양한 일본군함의 제주도입항을 강력히 반대</li> <li>- (2018-10-07) 제주도지역시민사회단체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규탄하는 반일공동행동을 벌릴 입장 발표</li> <li>- (2018-10-13) 《제주 국제관함식이라는 &lt;군사작전&gt;이 펼쳐지고있다》(1)</li> <li>- (2018-10-14) 《제주 국제관함식이라는 &lt;군사작전&gt;이 펼쳐지고있다》(2)</li> <li>- (2018-10-16) 제주도시민사회단체들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관함식》을 강력히 규탄</li> <li>- (2018-10-17)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 일본의 헌법개정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li> </ul>

〈표3〉에서 보듯이 대체로 제주관련 기사는 전체기사 대비 0.1%내외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는 10월31일까지 21건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무려 0.68%를 보이는데 이는 전년대비 10배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 3년간의 평균보다도 8.5배 많은 수치이다. 물론 절대량으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 3년간의 기사는 2015년 해군기지 관련 4건과 ‘4.3’ 관련 2건이며, 2016년에는 ‘4.3’관련 2건과 위안부합의에 대한 집회1건, 촛불집회1건이고, 2017에는 촛불집회와 촛불 1주년기념 기사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2018년에는 ‘4.3’관련 기사가 13건으로 매우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동신문에서는 가장 기사가 많았던 50년대에 21건인데 반해 한 해에 13건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수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7건에 이르렀으며 세월호 관련 제주도민 행사가 1건을 보이고 있다. 관함식에 대해서는 사진자료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주에 관한 기사는 다루지 않던 다른 내용이 특별히 증가했다기 보다는 올 해 ‘4.3’ 70주년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급증한 것과 관함식에 대한 기사의 증가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기사대비 기사 증가율도 그러하지만 2018년 들어 제주도에 대한 북한 우리민족끼리 언론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IV. ‘4.3’ 항쟁 기사 추이와 『김일성저작집』에서의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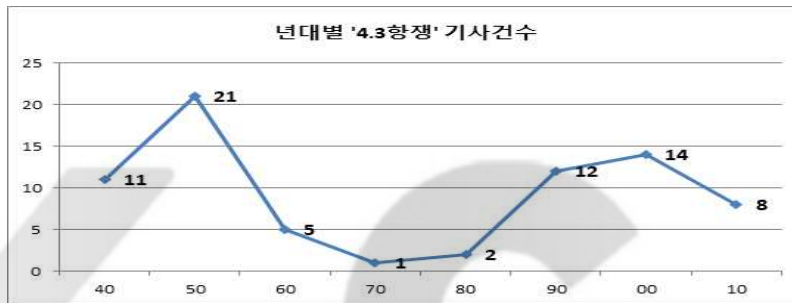
##### 1. ‘4.3’ 항쟁 관련 기사의 추이

‘4.3’ 항쟁에 대한 기사는 71건, 21.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31건의 기사가 48~52년 사이에 게재되어 항쟁 초기에 게재 비중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60년대 5건, 70년대 1건, 80년대 2건, 90년대 12건, 2000년대 14건 그리고 2010년대가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건 당시에 보도기사가 많았으며, 이후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에 급증한 것은 ‘4.3’ 항쟁 50주년이 되면서 그즈음에 증가한 것이다

〈그림12〉 연대별 ‘4.3항쟁’ 기사건수 추이



60년의 3건과 70~80년대 3건은 기념일 중에 ‘꺼어지’는 해에 실린 추모기사이다. 그런데 83년에는 ‘4.3’ 항쟁 35돌을 맞아 ‘평양시보고회’가 진행되었는데, 최초의 일이다. 88년에도 40돌 평양시보고회가 있었고, 93년에는 기사화가 안 되었고 보고회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98년에는 전날인 4월 2일 50돌 평양시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2008년에는 60돌을 맞아 보고회 소식은 없으며 그러나 송영석이라는 이름의 필명의 글이 전과 유사한 분량으로 로동신문에 게재되었고, 이후부터는 대부분 필명의 글로 대신하고 있다. 2011년 4월 4일자에는 김향미라는 이름의 필명으로 “제주도봉기자들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2013년 4월 3일자에도 복은희라는 필명의 “제주도항쟁용사들의 낮은 대중적투쟁을 부른다”라는 기사로 게재되었다. 이후부터는 매년 4월 3일 또는 4일자에서 필명의 글이 실리고 있다.

〈그림 13〉 제주 '4.3' 50주년 기념 기사(로동신문 1998년 4월 3일)

# 제주도 인민들의 4. 3봉기 50돐기념

【경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제주도 인민들의 4.3봉기 50돐기념 경양시보교회에서 2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교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통에겐 정부원부임과 장성  
봉지와 전도봉봉주 중앙위원회  
위원장 취임선생, 조국평화포  
럼위원회의 부위원장 요직선생,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  
의 협회위원장, 조선사학자연구  
중앙위원의 경정보무장부장, 조  
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의  
서기국 박남순씨, 조국평화포  
럼위원회의 서기국 한석규씨, 법  
정인 육복은부 강경대부의장, 평  
안성형정적위원회 신안부유지  
관장 등 사단법인, 종교단체 책  
임공로들, 실제 각종 근로자들  
이 참여하였다.

또한 《한민전》 영양대부부 미  
상대표로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통에는 여극자의 주축으로  
시작되었다.

보고회에서는 한시해극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들같이 고정될 무지식 사회주의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령군을 힘차게 벌이고있으며 해 내의 온 겨레가 민족주의의 속된 인 조국통일의 천한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거룩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제주도 인민들의 4. 3방치 50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며

그는 제주도 인민들의 4.3 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경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무

장항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에 거머쥔 공명정치를 실시해온 미제가 이른바 '유엔 원시조식위원단'이라는것을 조직하여 유엔의 간판밑에 우리 나라를 틀로 갈라잡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책동을 한때 대하여 언급하고 미국의 이 범죄적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제주도의 애국적인민들이 1948년 4월 3일 대중적인 '무장봉기'에 떨쳐나 이르는 곳마다에서 피뢰총치기관들을 습격하고 파괴하고 친미주구들을 소탕하였으며 감금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구출하고 강제해산당하였던 인민위원회를 복구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이  
 든바 《제주도비상경비비행부  
 을 설치하고 수많은 시민병력  
 수천명의 무장경찰, 《국방비행  
 대》 지어 무장해란과 비행기  
 까지 통원하여 제주도해안을 봉  
 쇄하고 인민들을 학살하는데 제  
 조. 투옥, 학살하는데 격분한 인  
 중들은 인민유격대를 전성하고  
 피의 경찰서와 지서들을 파괴하  
 는 등 맹렬한 공격전을 벌여 제  
 도에서 《단두대기》놀음을 완결  
 시키고 나서야 그만두고 만다.

제주도 인민들의 4. 3 봉기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주의  
힘에 의하여 통일독립국가로 건  
설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철한  
애국적 지향과 완강한 투지를 남  
김없이 시위하였다고 그는 강조  
하였다.

보고자는 제주도 인민들의 4.3 봉기가 있을 때로부터 반세기여 지나갔으나 민족의 자주권 실현과 나라의 통일독립에 대한 봉기자들의 절절한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엔의 간판을 동용하여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각종 예측적인 《조약》과 《협정》을 통하여 남조선에 완전한 식민지로, 납치당민까지도 건반 식민지 미지는 통치외교로 조성될 터이다. 새로운 회피를 내세워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조반반당정책을 끊임없이 취화시작하고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위기를 절고 그 누구의 《기습공격》과 안보문(常備)에 대해 비둘기편 남조선에 적시진공사정권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조반반당정책을 극도로 강경시조인지는 가운데 남조선강경지 8미군과 미국본토에 있는 3군을 아메리칸제로 개척하는 총공작이 벌여졌다.

이것은 미국의 새 전쟁 도발동  
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앞  
서는 조미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  
에서의 평화보장에 관심이 있는것  
처럼 허만 미국의 지체 속에는  
우미 평화국을 힘으로 압살해보려  
는데 있다는것을 실감케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체와  
간섭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조  
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는 오늘날에 다른 나라와 민  
족들이 간주세력 내 산하 및

목골이 지구구덩기와 세 사의 건널  
의 길로 만나있을 때에 유독 남  
조선만이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굴욕과 치욕의 땅으로  
남아있었던 남조선에 대한 미제  
의 식민지이자속화쟁탈과 력대 남조선  
선봉지배를 위한 대북침략계획을  
개진시켜왔다고 하면서 특히 김영  
삼에게도라는 지난 5년동안 미제  
에 이 피로물들은 더욱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남조선사회의 거  
주와와 민주주의의 길을 막랄한  
가르막과 북반구제를 위악의 상태  
에 몰아넣음으로써 나라와 민족  
앞에 천후에 융합 못할 큰 리를  
지길했다고 폭로하였다.

민족분열이후 남조선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는 남조선통치자들이 의세의존과 파쇼, 반독재정책들을 끝까지 않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대한 명천도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국통일도 기대할수 없으며 세·전쟁, 핵전쟁의 참화도 면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제주도 4. 3. 봉기자들의 넋전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인 동시에 조국통일을 일일천일로 갈망하고있는 해내외의 온 민족 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하고도 중대한 파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름과 같이 지적하였거늘

《조국동맹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이상 미흡할 수 없는 최대의 민족  
적과업이다. 만민을 무릅쓰고 조  
국을 통일하여 민족본질의 비  
극의 역사, 지옥의 역사를 끝짓  
내야 한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이 힘을 합  
쳐 조국통일의 건전적국민을 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내선에서 민족자주의 횡장을  
대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  
내지 못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요즘 남조선의 집권상층에서 미국과의 그 무는 《안보협력이 국익》을 지키는것이라느니, 미군철수는 《북이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느니 하고있는것은 사실상 나라의 영구분열과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지속시키고외세와 아합하여 동족을 힘으로 압상하려는 반민족적행위로 필연이므로 면박한다.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의 정치인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립장에 서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는 길로 나

외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도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  
소하는것과 같은 근본문제의 해  
결을 의면하면서 「대화와 교류,  
리산가족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우리공당을 대표한

말리 불주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반북대결정책을 평화외교정책으로 바꾸고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충돌행위를 그만두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어국인사들을 석방하고 그들의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오늘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것은 절박한 과제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단결정의로 북과남관계개선을 바라고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고 북측 국공작당, 단체인합회의에서 제시한 의미의 평의회 회동에서 유족

부러의 제2회 하우루키 오송제  
나사아 제회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뜻깊은 올레에 내의  
반응일본평생사의 제등을 첫부서  
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활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은 거래는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멸의 조국통  
일 총서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방책을 철  
저히 관철하자》를 높이 반포고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대행진  
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는 날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 2. 『김일성저작집』에서 ‘제주’ 이미지

김일성저작집에서 볼 수 있는 제주도의 용어 사용 횟수는 모두 16회이며 12건의 문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한 문건은 김일성 개인의 발언이거나 북한측 인사의 발언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대통령의 발언은 인용한 내용에 등장하고 있다.<sup>9)</sup>

그리고 16회 중 9회는 50년까지의 문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4.3항쟁의 내

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두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민에게 한 방송연설(1950.9.9).”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6건의 문건에서 사용되었다.<sup>10)</sup> 한국전쟁 이후에는 59년에 강원도의 수산업 발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는데 다소 흥미롭게도 제주의 해녀가 인용되면서 북한 여성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대에는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개척하는 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바다의 자원을 개발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도 더욱 증진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녀자들도 바다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제주도해녀들은 남자들을 앞혀놓고 자기들이 바다에서 벌어먹인다고 합니다. 녀자들도 바다에 나갈수 있습니다.”<sup>11)</sup>

로동신문에서는 해녀의 삶을 고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60년대에는 착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차가운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주석이 언급한 1959년은 아직 해녀의 노동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 외에 제주도를 가보고 싶은 섬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망 1년 전인 1993년에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는 혁명동료 신진순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모시고 제주도과 다도해에 가고 싶다”라고 했던 언급을 강조하고 있다.<sup>12)</sup> 물론 “통일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김일성주석에게

10) 김일성,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1943.9.15.).”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에 관하여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서 한 보고(1948.7.9.).”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한 보고(1949.6.11.).”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립 1주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한 보고(1949.9.9.).”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전체 조선인민에게 한 방송연설(1950.7.8.).”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모든것을 전선으로 -8.15해방 5돐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한 보고(1950.8.15.).”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1) 김일성,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도수산부단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1959.6.11.).”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38.

도 제주도는 한번 가보고 싶은 섬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밖에는 미국이 제주도 인근까지 항공모함을 배치하려하는 언급(1973.10.11.)이 한 번 있었고, 날씨를 언급하면서 제주도를 태풍이 지나간다는 언급이 한 번 제기되었다.(89.11.14)

이같이 김일성의 저작에서 언급되는 제주도 용어 사용의 과반수는 4.3항쟁을 언급하면서 사용될 만큼 제주는 김일성 주석에게도 그리고 저작집을 읽어야하는 대상들에게도 4.3으로 더 각인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으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게 있어서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섬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나, ‘4.3’의 피해가 깊이 새겨져 있는 핍박받은 땅이자 ‘항쟁의 섬’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이승만 정부의 ‘탄압과 폭정’ 그리고 차별받는 지역으로서의 상징으로 제주도를 이미 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해방 직후의 사건보도 등이 로동신문에 게재된 이후 60~80년대까지는 제주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로동신문의 지면이 대체로 6면에 불과해서 양적으로 매우 적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주로 대남면으로 사용되는 5면에(최근에는 6면에 게재) 게재되는데 이마저 북한 내부의 큰 행사가 있을 경우 대남 기사는 전혀 게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접어들면서 기사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4.3’항쟁 50주기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제주도민방문단이 오가면서 교류가 활발해지던 시기에는 ‘4.3’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는 특징도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주방문 시에 <4.3평화공원>과 같은 4.3관련 장소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질지 관심 사안이

12) 김일성, “문학예술부문일군들과 한 담화(1993.2.12.)”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지면 외에 우리민족끼리 인터넷 기사에서 제주관련 기사들이 급증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총량은 많지 않지만 과거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변화과정에서 북측이 제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K C I

## 참고문헌

- 기광서,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 : 소련의 남북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1948년도 『프라우다』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史叢』 67권, 2008.
- 김정은, ‘로작’ 53건.
- 손과지, “4월혁명과 민주주의: 중국의 한국 4.19 혁명에 대한 인식 -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중심으로-,” 『史叢』 71권, 2010.
-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집』 전4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 \_\_\_\_\_, 『김정일선집』 전1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 진희관, “북한의 로작 용어 등장과정과 김정은 로작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1권 2호, 2017.
- 『로동신문』 1945년(정로)~2018년 10월 31일.
-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



## 〈Abstract〉

Analysis Contents of Jeju Shown  
on the Literature on Space of North Korea

Heegwan Chin(Professor, Inje University)

This manuscript aimed at finding and analyzing contents of Jeju shown on the formality literature of North Korea. To examine perception of North Korea toward Jeju, there is a method to confirm by having a talk with people at various classes of North Korea (social survey method), and this is also a method to confirm indirectly through their formality literature (content analysis method). In addition, we can also confirm partially throug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emigrated from North to South Korea. Of the foregoing, this manuscript used analysis through interpretation of formality literature which is practically and physically possible. It is a method that analyzes Rodong Shinmun newspaper and literature on the ruler. Although the fact that Jeju is an island with beautiful natural landscape is obvious to North Korea, the perception as a persecuted land and 'island of resistance' where the damage of 4.3 (April 3) is deeply engraved is considered very strong. And Jeju Island is also evaluated to be imaged by 'repression and tyranny' of Syngman Rhee government and as a symbol of discriminated area.

However,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re almost no mention about Jeju Island until 60~80s after incident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was put on the Rodong Shinmun newspaper. This is caused by very few quantitatively as the space of Rodong Shinmun newspaper was merely 6 pages. Articles were put on page 5 (page 6 recently) which was mainly used for the South, but such articles were not even published at all when there was a big event inside North Korea. Entering 90s, however, 50th and 70th anniversary of Jeju 4.3 is considered one of the reasons for reincreasing trend of articles.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articles on Jeju 4.3 were not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brisk exchange with shuttling of Jeju Island visiting group in the 2000s.

Keywords: Jeju Island, North Korea, Formality Literature, Rodong Shinmun, Kim Jong-un,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Jeju 4.3